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툰키) Safety Experience Theme Park

강원도는 석탄산업의 쇠퇴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원산악형 관광레저 도시로서의 태백시 위상정립을 위해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 현상설계경기(툰키)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공간건축사사무소(이상림·오성훈) + 간삼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오동희) + GS건설컨소시엄의 안을 선정, 발표하였다.

당선작 / (주)공간건축사사무소(이상림·오성훈)
+ 간삼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오동희)
+ GS건설컨소시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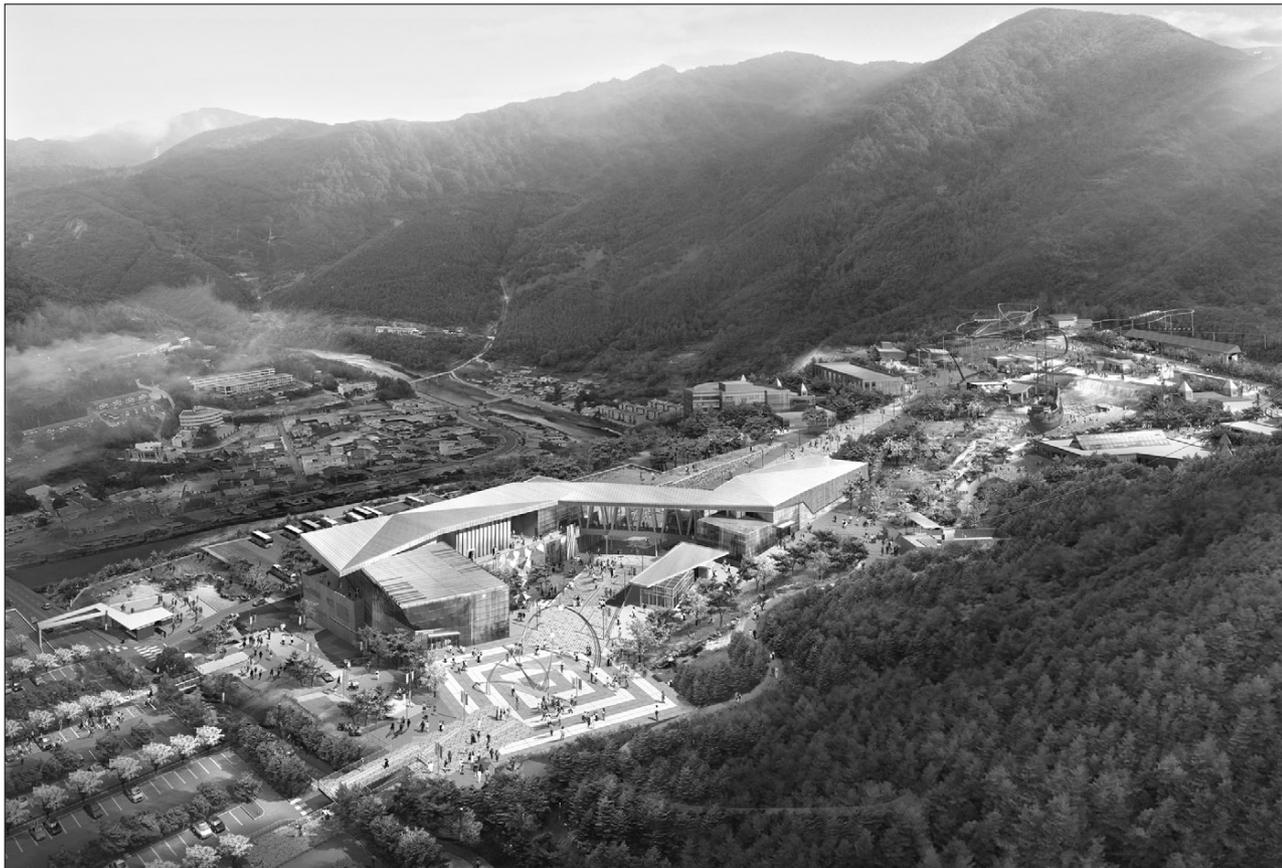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태백시 장성동 31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일반주거지역
용도	유원지
대지면적	954,000㎡
건축면적	12,968,24㎡
연면적	25,150.64㎡
건폐율	1.48%
용적률	2.19%
주차대수	총 1,265대(장애인포함)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
규모	안전체험관 : 지하 1층, 지상 3층 안전학교 : 지하 1층, 지상 4층 곤돌라 승강장 : 지상 2층
설계팀	공간 : 이현중, 김광수, 한소현, 양희진, 김경선, 이동건, 이상희, 이재호, 조광재, 이지혜 간삼 : 윤흥노, 홍석기, 차봉근, 김성훈, 김지영, 박정연, 원종욱, 고영철, 정주원

수도권에서 3시간여 떨어진 대지가 갖고 있는 대지의 물리적 한계와 자연요소의 풍부함 그리고 대지내 각 지구간의 물리적인 단절은 중앙지구를 매개로 한 다양한 테마코스의 개발과 곤돌라 등의 도입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다.

장성의 와우스트리트, 철암의 와우플라자 등은 우연성이 있는 옥외공간으로 계획 유도 테마파크의 공간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10개의 주제(산불, 해일, 풍수해, 지진, 설해, 교통사고, 폭발, 화재, 붕괴, 지하철)는 인위와 자연재난으로 나뉘고, 각각의 체험관은 건물내부로 갖혀 있지 않고 와우스트리와 함께 호흡하면서 단순한 문화시설보다는 테마파크 요소로서 자연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철암지구의 와우플라자는 추후 건립될 숙박시설과 안전학교의 교육과정의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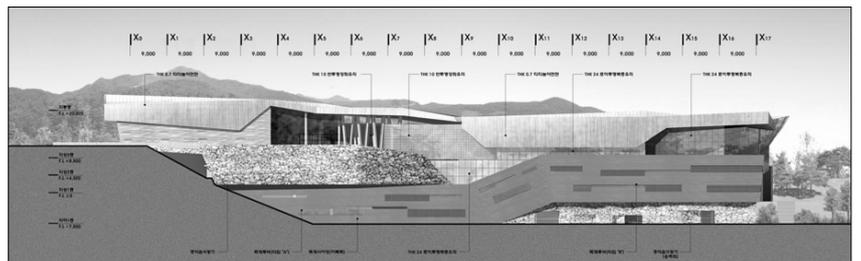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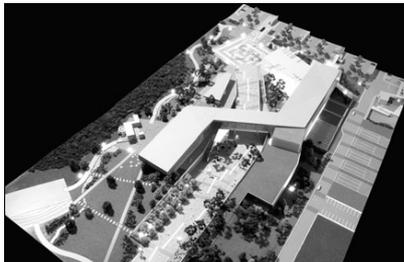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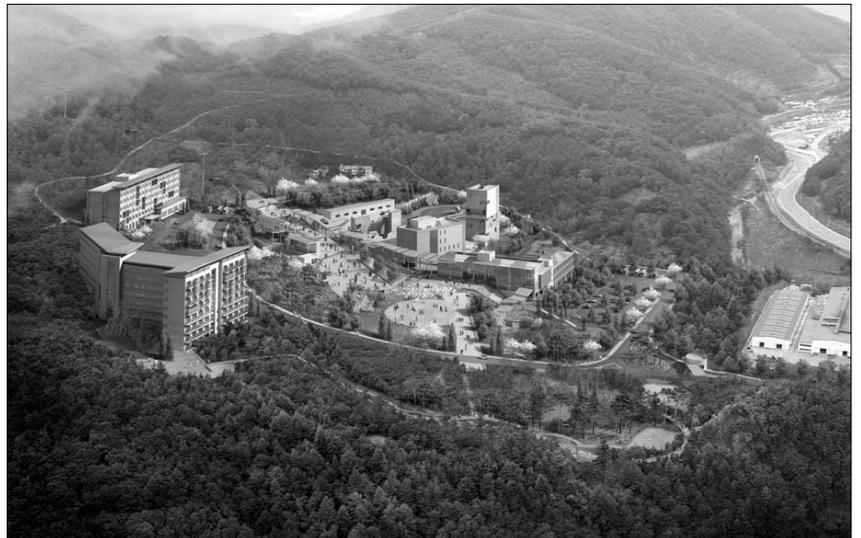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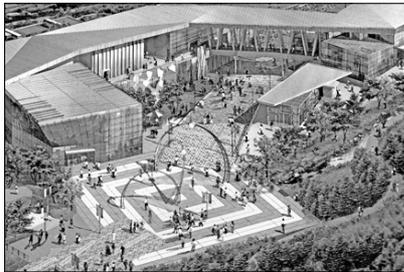
조형개념은 장성지구의 안전체험관은 자연의 물, 불, 바람, 흙의 네가지 요소가 조화와 균형을 이



루면서 일어나는 각각의 재난을 상징하고, 그 Bend가 건축 조형의 개념을 표현하면서 자칫 위락시설의 즉흥성으로 흐르지 않게 의도하였다. 중앙지구의 곤도라승강장은 주변의 자연요소와 상반되는 스테인레스루버를 적용 전체 지구를 연결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배치도



정면도